참고 2. - 열린예배의 성서적 조명과 영성

최근 열린예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개념'(Concept)과 '양식'(Style)중 어떤 것이 더 결정적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열린 예배에 대한 논의가 '겉모습' 또는 '형식', 즉 '스타일'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성(意圖性, intentionality)과, 그 의도를 전달할 때 전제되어 있는 문화적 조건들(Cultural conditions)이다. 의도성을 조건 지우는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스타일은 수 없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의도가 같더라도 문화가 다를 때, 스타일은 달라진다. 스타일이 같더라도 문화가 다를 때에는 그 의도성이 달리 전달되고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예배의 '개념'(Concept)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겠다. 즉, 열린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과 같은 스타일을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은 무엇이가? 왜, 이러한 논의를 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한계내에서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할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열린 예배'는 최근 한국 교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 또는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Seeker Sensitive Service)에 대한 '한국적 번역 용어'이다. 그것도 최근 몇 년간 연쇄적으로 사용되고 적용되고 있는 일련의 사회적 변화 - 열린 음악회. 열린 교육, 열린사회 등 - 와 병행되는 용어이다. 우리의 논의를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려고 하고' 경향성과 움직임과 연결시킨다면, 한국 사회에 대한 토론으로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열린 예배'에 대한 논의는 사회학적인 필연성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20세기 한국 사회의 현실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하지 말자, 우리의 논의는 보다 본질적으로, 보다 신학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오늘의 '열린 예배'는 그 스타일에 있어서는 새로울지 몰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열린 예배는 '상황화' 또는 '문맥화'로 번역될 수 있는 '컨텍수투얼라이제어선'(Contextualization)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이말을 쉽게 풀이 한다면, '말끼를 잘 알아듣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 이다. 이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자.

첫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의 결과이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선포되고 기록되고 전승되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전제하고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의 문화적 전제들(Cultural presuppostions)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Concept)은 '히브리어' 도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한 '컨텍스트'를 전제하여, 오늘의 기록된 말씀을 낳게 되었다. 이것을 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렇다.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채널이 사용되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포되고 기록되고 전승되었다.
예를 들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선포할 때,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했다. 물론, 이사야의 의도가 반드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즉 이사야가 의도했던 대로 청중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사야의 의도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한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http://file.onnuritv.com

즉, 이사야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문화적 요인들 - 언어, 개념, 자연, 표현 방법, 수사학, 관습, 비유 등 - 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사야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개념'(Concept)이 호세아의 입에 담겨졌을 때에는, 호세아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옷이 입혀진 상태로 선포되었다. 호세아는 자기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와 상황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모든 성서 기자들이 이러한 의도성을 갖고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의 한 결과이다.
모든 언어 현상은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의 과정이다. 모든 문학, 역사, 영화, 고미디와 유우머 등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이 아닌 것이 없다. 만약에 이러한 컨텍스투얼아이제어션이 없거나 약할 때, 흔히들 '시대에 뒤떨어진' 또는 '표현력이 부족한' 또는 '말솜씨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말은 해도 능력이 없고, 말이 많아도 변화가 없는 것은 바로 이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의 결핍 또는 부족 때문이다. 문화와 역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둘째, 성서 안에 있는 내적인 역사(inner history)를 통하여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일어났다. 어떠한 개념이 시대가 바뀌고 문화적 배경이 변화됨에 따라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의 과정을 거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구원'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화됨에 따라, 즉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이후 시대, 중간사 시대, 신약시대 다른 옷을 입게 된다. 또 다른 예는 '제사'도 이러한 역사적 시대를 거치는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컨텍스투어라이제이션의 과정을 거쳤다. 성경 안에서도 제사의 형태와 스타일이 변화되었다. 예를 들어, 레위기의 성전-희생 제사(Temple-Sacrifice)가 중간사를 거쳐 신약시대의 회당-율법 낭독(Synagogue-Law)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교회사를 통하여 변화되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변화되어, 현재까지 이른 것은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의 대표적 케이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며, 또 계속 반복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사 - 예배의 변화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열린 예배'라고 부르는 바, 최근 스타일이 현대화된 예배는 새로운 현상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셋째, '성육신'(incarnation)은 계시와 역사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기독론과 구원론의 처음이요 끝이다. 말씀이 육신 된 것은 컨텍스투얼라이제시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육신이 되지 아니한 말씀은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한다. 육신이 없는 그리스도는 영지주의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성육신은 요한복음에만 국한되는 진리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증거 하는 진리이다. 성육신은 구원의 내용이며, 동시에 구원의 방법이다. 즉, 성육신은 복음의 내용이며, 동시에 복음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는 복음의 본질적 진리인데, 이 진리가 전달될 때도 역시 '성육신 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열린 예배'의 영성이다. 열린 예배의 영성은 '인카네이션'에서 찾아진다.
커뮤전하는 사람니케이션의 원리 중 하나는, 어떤 메시지든지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받는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전하기 쉬운 방법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카네이션이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함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문화이다. 한쪽 문화에서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다른 문화에서도 똑같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

http://file.onnuritv.com

다. 예를 들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열린 예배도 그렇다. 미국 문화에서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스타일이 한국에 그대로 복사될 때, 전달되는 메시지는 왜곡될 수도 있고 오해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려면 미국에서는 미국 문화에서 가장 적합한 스타일을 찾아야 하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자장 적합한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토론이 "열린 예배를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열린 예배가 옳은가? 그른가?" 에 초점을 맞추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 문화에서 가장 적합한 열린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거룩함의 극치이다. 절대자가 상대자가 되고,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고, 거룩하신 분이 속된 몸과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이며, 거룩하심의 절정이다. 더 쉽게 말하면, 어린이 아이가 되고, 부모가 아이의 말과 몸짓을 하는 것이, 아이에 대한 어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인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비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몸짓을 사용하고, 영적인 어른이 영적인 아이에게 아이가 기뻐할 언어와 몸짓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을 몸소 실천하려는 영성인 것이다. 영서의 극치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인카네이션으로 극적으로 표현된다.
이때,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예배는 성도들만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배가 복음을 접할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되어 온 만큼, 예배에서 컨텍스투얼라이제이션과 인타네이션을 실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형하고 너무나도 필연적이지 않는가?

넷째, 이런 측면에서 바울의 성육신 적인 전도 방법을 주목하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 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예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19-23)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 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의 옷을 입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옷과 언어를 사용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인정하면서 존중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했다. 이 이유는 유대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 즉 헬라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는 돼지고기를 먹었다. 이 이유도 가능한 한 많은 헬라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인들과 함께 돼지고기를 먹는 사실 때문에 실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과 믿음을 같이 나누었다.
여러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 모양의 문화를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어떻게 하든지 몇몇 사람들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한 일이며, 복음에 참예하는 길이다. 이것이 인카네이션적인(incarnational)결단이다. 성육신은 복음이며 복음은 성육신이다. 성육신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에게 성육신은 고통이었다. 하나님이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이다. 만약, 현대 문화를 사용하되, 사용하는 사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문제의 초점이 달라진다. 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문화가 무엇인가? -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문화가 무엇인가? -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다. 현재 한국 교회의 방향과 스타일을 결정하는 그룹은 어떠한 문화에 속해 있는가? 질문해 보자.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화에 속해 있는가? 를 생각해 보자. 전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를 고집하지 말고, 전함 받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열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통이 될지라도, 이것이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라면"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성육신 적인 결단이다.

http://file.onnuritv.com